

기말고사 ‘대면 원칙’ 확정에도 ‘비대면’ 선택 절반

교강사가 안전, 공정성 관리
세부 유의사항과 주거대책 마련
캠퍼스 간 셔틀버스 운영도

장보경 기자 jbg9687@khu.ac.kr

총학생회(총학)와 학교가 ‘기말고사 대면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총 2167개 가운데 884개(40.7%), 국제캠퍼스(국제캠)는 1835개 중 1,002개(54.6%) 강좌의 기말 시험을 대면 방식으로 치른다. 나머지 강의는 비대면 시험이나 과제 대체 등의 방식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서울캠 총학은 “두 차례에 걸친 부총장과 총학생회장단 간의 면담에도 불구하고 기말고사 대면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캠 남순건 학무부총장과 교무처장, 코로나19 종합상황실장, 총학생회장단이 기말고사 시행 원칙 재논의를 위해 진행한 면담의 결과다. 기말고사 대면 원칙은 유지되지만, 코로나19 종합상황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면 시험을 진행하는 교강사는 비대면 시험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등의 학생들은 해당 교강사에 ‘비대면 평가신청서’를 제출해 비대면 시험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캠 총학 또한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해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도 허용한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총학이 대면 시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며 ‘대면 원칙 철회’를 요구했으나, 학교 측이 성적 평가의 공정성 보장을 이유로 대면 원칙을 고수한 것이다.

논의 결과에 대해 서울캠 총학은 “대면 시험 진행 시 발생할 우려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말고사 기간까



서울캠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학생회장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반환 등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진=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제공)

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원칙을 재공지한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일부 강의에 대한 대면 시험 진행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기말고사 대면 원칙이 결정된 상황에서 서울캠 총학은 “시험기간 전까지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마무리할 것”과 “안전수칙을 점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책임자로 담당 교강사를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대면 평가신청서에 ‘대면 시험 비희망자’란을 추가해 확진자나 유증상자 등을 제외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시험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비대면 시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기말고사 기간 전

까지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최대한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교무처장 권한으로 전 수업에 대해 교강사가 시험 진행 시 안전, 공정성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비대면 평가신청서에 ‘대면 시험 비희망자’란을 추가하는 건에 대해서는 “악용될 수 있으며, 교강사로부터 페널티를 받을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기말고사 기간 동안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주거 대책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는 총학이 진행한 수요조사에 근거해 학교가 마련한 것으로, 300명 이상의 학생이 서울캠 세화원과 행복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다.

양 캠퍼스 학사지원팀은 기말고사 관련 세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의사

항에 따르면 대면 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 정문과 건물 출입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건물에 출입할 때마다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또한 ‘강의실 출입자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곧바로 귀가해야 한다. 국제캠 총무팀은 “기말고사 기간인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양 캠퍼스 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학생회관 식당 또한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학사지원팀은 비대면 시험에 대해서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과목 성적 무효 처리 및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시험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홍익대와 서강대는 성적 평가기준을 유연화하기 위해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

했다. 이는 D학점 이상을 받았을 경우 P(Pass)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로, P로 처리된 과목은 평균 학점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홍익대 총학은 지난달 15일 등록금 부분 반환, 전 과목에 대한 학점 포기 허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서울캠은 지난 10일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각 지역의 학생자치 연합조직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가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국제캠 총학은 지난 12일 진행된 회의에서 학사일정과 기말고사 세부 운영방식 관련 요구안을 학교에 전달했으며, 중앙운영위원회는 ‘기말고사 관련 신문고’를 열고 대면 수업 강행 사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새 단장하는 우정원 “교내구성원 위한 편의시설 조성”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국제】 우정원이 새롭게 리모델링된다. 학교 측은 “우정원 리모델링 시안이 나왔다”고 밝혔다.

2019년 5월부터 계획한 이 공사는 개·보수공사를 시행하고자 기흥구청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기타 관련법을 고려해 공사범위를 일부 조정하여 진행 중이다. 학교 측은 지속적으로 교내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정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보수 공사는 학생들의 거주 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을 나누어 진행된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편의시설 조성 공사가 우선 시행되며 지상 6층 기숙사 개·보수 및 7층 연구실 조성 공사도 진행된다. 이후 방학을 활용해 지상 2층에서 5층까지 기숙사 공간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각각 학내구성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학생 창업 지원 시설, 서점, 운동시설, 1층에는 은행, 편의점, 커피숍, 세탁소, 문구점, 푸

드코트 등이 생긴다. 또한 기숙사 학생을 위한 기숙사 사감실, 세미나실, 다용도실, 휴게실, 취식실, 조리실, 택배 보관실, 그 외에 기타 학생을 위한 학생지원 행정부서, 우체국 등도 조성할 예정이다.

지상 2층에서 6층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숙사로 운영되며, 7층은 학생수 감소와 기숙사 공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구실로 전환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2021년 2월 중 개·보수 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2021학년도 개학 시점부터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면안내

기획

이번 학기 아쉬운 행정 조치 ... 소통 부재 해결해야

» 4면

연재기획 - 청년정치는 가능한가

단절은 직시하고 경계는 뛰어넘고 ... 청년정치의 시작

» 6면

인터뷰

보수 정치권 세대교체 “축적된 역사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 8면

알림

※ 이번 호가 1학기 종간호입니다